

무조건 가야 할 길

2018년 8월 한해치고 삼복의 무더위가 제일 기승을 부리던 어느 일요일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잠시의 휴식도 뒤로 미루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맛있는 고기와 우유를 먹이시기 위하여 어느한 종합목장을 찾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량종축산연구소를 비롯한 여러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면서 새 품종의 돼지육종사업과 사료용풀재배에서 나서는 문제, 소품종을 개량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축산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고나서 요즘 고온현상이 계속되고있는데 오늘도 날씨가 간단치 않게 무덥지만 목장을 돌아보고나니 마음이 거뜨하다고 하시며 자신께서 가는 길은 인민을 위한 길이라고, 이길은 더우나 추우나 무조건 가야 할 길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 말씀에는 우리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며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자신을 다 바치시는데서 보람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관, 인생관이 그대로 어려있다.